

은혜와 진리소식

2024년 8월 11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91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저에게 음악 분야의 재능을 주시고, 재능을 키우도록 학교생활을 도와주시고, 그 재능을 활용하여 교회에서 즐겁게 봉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이 지 은 -

저는 판교성전에서 청년봉사선교회에 소속하여 은혜와진리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제가 막 걸음마를 시작할 때 이웃에 사시는 은혜와진리교회 구역장님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회중심으로 생활을 하시며 봉사와 전도에 힘쓰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따라 오빠와 함께 저도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뛰놀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장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특히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서 저는 유치부 성가대를 시작으로 중고등부 성가대와 찬양단에서 봉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교역자님과 선생님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예배와 교회행사를 위해 봉사하면서 음악 분야의 재능을 한껏 키울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 하나님의 섭리로 방과후 수업을 통해 가야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서 처음에 품었던 기대와는 달리 배우기가 어렵고 손이 아파 흥미를 잃어버릴 무렵, 학교 게시판의 구석에 붙어있던 포스터가 유독 제 눈에 띄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예술고등학교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재원을 운영하는데 이번에 가야금 영재를 선발한다는 안내문이었습니다. 합격하면 1년 동안 음악수업과 가야금 수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속마음은 가야금을 배우고 싶은 욕구보다 예술고등학교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이 더 컸습니다. 접수 마감시간 30분 전에 부랴부랴 그 학교로 달려가 지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험 당일에 학교에 갔더니 전국에서 실시되는 각종 음악 콩쿠르에 참가하여 상을 휩쓸다시피 하는 영재들이 시험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악보도 제대로 볼 줄 모르고 악기 조율도 못해서 다른 학생들과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치른 후 저는 궁금해하고 와보

고 싶었던 학교를 구경한 것으로 만족하고 합격자 발표날이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선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합격 사실을 전화로 알려주셨습니다. 나중에 심사하셨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게이름(옥타브를 분할하는 음의 명칭)도 잘 모르는 아이가 영재라고 시험을 보러 와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뽑을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고, 저의 성실함과 장래성만 보고 합격시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사위원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저는 본격적으로 음악을 전공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악기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체능 분야가 그렇듯 경제적인 것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저희 가정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라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제가 악기를 전공하는 것은 엄두를 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저를 도우셨습니다. 첫 수업을 앞두고 악기가 없어서 걱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사촌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배우던 가야금이 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저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찬송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학교에서 신실하신 은사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며 끝까지 성심성의껏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재원에 꼴찌로 입학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수석졸업을 하고, 예술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장학생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이처럼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면서 저는 저의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한 달 동안은 방황을 하였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들 간에 그리고 다른 학교 학생들과도 경쟁이 매우 심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웠고, 앞으로 같은 예술 계통의 전공으로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3년간 공부를 잘하고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염려가 밀려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 레슨도 많이 받아야 해서 부모님께 죄송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저의 형편을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학교가 미션스쿨이어서 학교 안에 누구든지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 첫날에 저는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곳에서 먼저 기

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선배들이 아침에 기도하려 가지 못하게 핍박하는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졸업하는 날까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 주셨습니다. 저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선생님들에게 사랑받게 해주시고 친구들과 선배들과 잘 지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어려운 실기에서 눈에 띄게 실력이 향상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2명으로 시작한 아침기도회가 1년이 되자 20명이 넘게 모이는 기도회가 되었고, 나중에는 저를 기도회를 인도하는 리더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중요한 연주회 연습이 있어도 교회의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하게 해주셨습니다. 3년 내내 다양한 장학제도의 도움을 받고 또 개인 레슨을 받을 때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학업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은총은 제가 대학교에 진학하는 과정과, 대학생활에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 간증문을 쓰면서 되돌아보니 전능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종 저를 입히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저는 가야금을 연주할 때마다 정말 행복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교회에 모여서 봉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는데 교회에서 여러 번 가야금 연주회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무척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피아노 반주자로 봉사하는 기쁨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국악 관련 방송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제가 아나운서라는 직업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GNTC-TV의 찬양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봉사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되어 나중에 방송사 아나운서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제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저를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섭리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복음전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자리에서 언제나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구역공과 제2권 (제2단원 :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 (제9과) 치료의 복음

- **본문** : 마태복음 4:23-25
- **요절** :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말라기 4:2)
- **찬송** : 465장(새찬송가 407장), 530장(새찬송가 472장)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행하신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며 셋째는, 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다음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더욱 잘 이해하게 해 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좃으니라.”(마 4:23~25)

예수님께서 인생들의 영혼 구원과 더불어 질병의 문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병자들을 고쳐 주신 것은 복음이 ‘치료의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 졌음을 증거합니다.

1. 예수님은 우리 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신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년간이나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 38년 된 중풍병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10명의 한센병 환자 등 온갖 종류의 병자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는 병자들을 결코 물리치지 않으시고 일일이 고쳐 주셨으며, 이 일로 인하여 식사하실 여유조차 없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질병을 치료하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사역에 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말 4:2)고 예언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는 ‘의로운 해’로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고를 담당하여 주실 것에 관하여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죄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사 53:4~5)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을 통하여 인생들에게 영혼의 구원은 물론 질병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자 하셨음을 분명히

알게 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고난을 받으신 사건은 우리가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인생의 질병과 연약함을 떨쳐 버리고 건강을 누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병고침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겠습니다(막 16:17~18).

2.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치료해 주십니다.

인간의 삶을 좀먹고 파괴하는 것은 비단 육체의 질병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질병은 몸을 쇠약하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데 그치지않고, 마음의 병은 우리의 삶 자체를 망쳐 놓습니다.

강박 관념과 망상, 음란하고 추한 생각, 미움과 시기와 탐욕과 같은 것들에게 마음이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의 생활 역시 쇠약으로 얼룩져 저주스럽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든 삶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든 마음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치료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치료를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병들고 상처 입고 지친 마음이 치료함을 받아 참된 평안과 쉼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병을 치료받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삶이 치료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치료의 복음은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요일 3:8)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힌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내 쫓아 주셨는데, 이 때 그들의 마음에서 귀신이 쫓겨 나감과 동시에 마음과 몸과 생활이 새롭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흉악한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던 귀신들을 내어 쫓아 주시자 온전히 변화 받아 주님을 위해 여생을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또는 귀신들에게 지배당하여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치료의 복음’을 전해 주어 전인적인 치료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은 사람으로서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장다리로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기2로 41 (별양동) T.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길 5 T.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기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30 T.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로로 55 (천천동) T.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웅산동) T.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